

# 金東里의 「乙火」考

이 동 길\*

## 〈차 례〉

- |                  |                    |
|------------------|--------------------|
| 1. 서 론           | 3. 불확정성 시대의 삶의 지향점 |
| 2. 자아중심적 삶과 그 모순 | 4. 결 론             |

## 1. 서 론

김동리는 「乙火」와 맥을 같이하는 「巫女圖」를 1936년에 발표한 이래 3번이나 개작했고 그것의 미진함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고자 「무녀도」와는 “별개의 작품”<sup>1)</sup>이라 할 수 있는 장편 「乙火」를 만년(1978년)에 다시 발표했다. 그의 〈작가의 말〉에서 “神과 人間의 관계, 저승과 이승의 관계, 이것은 나의 創作生活에 있어 一生을 두고 추구해가고 있는 기본적인 課題다”<sup>2)</sup>라고 한 것처럼, 장편 「을화」는 김동리가 작가로서 평생을 두고 천착한 인간의 삶의 세계에 대한 풀이이다.

단편 「무녀도」가 토속신앙 巫教와 외래종교인 기독교와의 대결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을화」는 그것에 바탕하되 그와 같은 신앙 속에 내

\* 계명전문대학교 교수

1) 천이두, 〈동굴의 미학과 광장의 신학〉, 「세계의 문학」, 1979 봄호, 239쪽.

2) 〈작가의 말〉, 「文學思想」, 1978.4., 313쪽.

제한 삶의 태도와 그에 영향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삶의 세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형상화함으로써 삶의 바탕이 무엇이고 대결의 원인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문제삼고 있다.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감과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취하고 있는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관계는 복잡다단한 삶의 양상을 생성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단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인간의 삶이 자아중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간은 그것을 넘어설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암울한 시대와 전쟁 그리고 비인간화의 상황이 점증되는 산업사회 속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든 김동리가 보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상생활의 현상적인 모순보다 그 모순을 낳게 하는 근원된 요인을 더 중요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산업화를 지향한 현실은 정치적 상황이 주는 답답함과 함께 작품에서 “산업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인간관계의 단절로서 제시되고, 사회의 비합리성의 측면에 대한 투영현상으로서 감옥이 시대사적 상징공간”<sup>3)</sup>으로서 제시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당대의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한 김동리의 인식태도는 그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보다 모순된 현실을 생성하게 한 근원된 요인을 생각하게 하고 자아를 재정립하게 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김동리는 이를 우리의 삶의 심연에 내재하고 있는 것과 일상적인 삶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와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서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에서 자아중심적인 것과 그것을 지양하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순의 근원을 보게 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현실을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것으로 주제적 삶의 인식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적극적인 표명이라고 할 수 있어 반역사적<sup>4)</sup>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91.3., 민음사, 188 - 197쪽 참조.

4) 류보선은 <탈근대적 지향과 전근대적 귀결 -김동리의 「울화」에 대하여-> (『문학정신』, 1992.7, 183쪽)에서 김동리의 문학은 “역사적 합법칙성의 부정과 이성적인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그의 “문학적태도는 철저하게 반휴머니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베네데토 크로체가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고 말할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을 과신한 진보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본 또 하나의 편견이며, 휴머니즘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서 기인한 오류이다.

「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무녀도」와 달리 「을화」에 새로이 설정된 면모들을 통해 작품 「을화」가 “삶과 죽음의 세계가 두 개의 다른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어떤 숙명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한 것”<sup>5)</sup>이고 ‘을화’의 존재가 “일상적 세계와 초일상적 세계의 결합을 구현한 존재”<sup>6)</sup>라고 했는데, 본고에서는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하여 주요인물들의 삶에 내재된 바탕과 그 의미를 좀 더 세밀히 살피고자 한다.

## 2. 자아중심적 삶과 그 모습

「을화」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삶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그 비극 속에 내재한 공통점은 무엇인가. 먼저 을화의 비극은 굶(베리데기)을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의 세계를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을화는 사회에서 가장 천대시하는 무당이다. 을화는 그 천대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굶 이외에는 관심 밖에 있고 제외되고 있기에 일상생활의 규범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을화가 무당이 되기 전 옥선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부터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되도록 형성하였다. 옥선의 아버지는 역촌마을의 토박이로서 “농삿일보다 노름판을 더 밝히는 놈팡이였는데 옥선의 나이 세 살 때 노름을 놀다가 칼을 맞아 죽었다.”<sup>7)</sup> 그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된 옥선엄마는 딴 동네로 옮겨왔지만 살 길이 막연하게 되자 결국 “온 동네 머슴 같이” 일해줌으로써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 “스스로 허물없는 양민촌으로 자처하”(337쪽)는 친민동네에서조차 옥선네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열 여섯의 처녀 몸으로 옥선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곳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된다.

옥선의 임신은, 인간다운 체면을 차리고 살 수 없었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란 옥선이가 일반 사회규범에 무지하고 그런 규범에 매일 필요성을 갖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이다. 옥선의 엄마가 성실하여 동네에서 신용을 얻

5) 신동욱, 「우리 시대의 作家와 모순의 美學」, 1982, 개문사, 256쪽.

6) 이동하, <한국문학의 전통지향적 보수주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136쪽

7) 「을화」, 「문학과 사상」, 1978.4., 337쪽(이하 작품인용은 본문에서 해당 쪽수만 밝힌다.)

고 살 수 있는 정도였지만 관습에 따를 정도이지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에, 옥선은 이제 막 피어오르는 순진한 처녀의 마음으로 본능에 더 충동적이었다.

「느거 엄마한테 야단맞을라꼬?」

「울엄마 없을 때, 울타리 구멍으로 내다 줄께」

이렇게 말하는 성출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옥선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것은 무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무서운 힘으로 성출의 가슴을 때렸다.

성출은 자기도 모르게 옥선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고추장 묻은 입술을 내민 것은 옥선이 쪽이 먼지였는지 몰랐다.(336쪽)

그러나 이 일이 그들 모녀를 마을에서 쫓겨나게 하고 어미가 술장사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하자, 옥선은 사회적 관습과 규범에 대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깊은 반감을 갖게 된다. 영술을 낳은 후 후실로 들어간 나이 많은 남편과 자기 어머니가 연이어 죽고 생계 꾸리기가 막연하여 다른 사람들이 술장사하기를 권했을 때, 옥선이 “「산 사람 입에 낫거미 줄 칠라고」 또는 「술에미 자식이란 소리 영술이한테 물려주기 싫심더」”(340쪽)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은 세상이 사회적 관습과 규범의 제약 속에 놓인 현실임을 인식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자신을 새로이 세운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의지처인 영술마저 몹쓸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절망적인 심정이 옥선으로 하여금 ‘하느님 전에 가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서낭당”을 찾게하고 그 인연으로 백지무당을 만나 영술이 낫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옥선은 성출에게 이끌릴 때처럼 절대적인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이것이 接神으로 인해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선도산 여신령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옥선이 무당으로 이름을 얻게 되면서, 옥선의 내면 속에 내재한 자아정체성의 충축에 대한 욕구와 결합하여 자아의식은 한층더 강화된다. 강화된 자아의식과 자신감은 옥선으로 하여금 神子의 의식을 갖게 하고 그것에 자기 삶의 중심을 두게됨으로써 일반인들이 따르고 있는 사회 관습에 구애받지 않게 한다. 무당이 된 후 박수 방돌과 정상적인 부부생활

을 하면서도 방들을 개의하지 않고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그러한 한 측면이다. 그리고 딸 월희와의 생활에서도 일반 사회생활의 규칙에서 벗어나 신과 늘 함께 한다고 믿는 자신의 생각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 자아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욕구를 강렬하게 자극했고 그것이 양민의 후실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자아정립을 하게 됨에 따라 굶어 죽어도 '술어미 자식이란 소리'를 영술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했다. 여기에 접신을 하게 되어 인간이면서 신과 소통하여 신의 의사를 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됨으로써 자아정체성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다 확실하고 높게 확보하게 된다. 이제 율화의 자아의식은 요지부동이 되어 사회의 명예와 이익에서 떠난 삶의 자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양면적인 행동에 대해 모순을 느끼지도 않게 된다.

그것이 신을 위한 일이면 정성을 다하고 남을 위해 헌신적이게 했고, 한편으로 방들을 떠나게 하고 영술을 죽이고 월희가 자기 자기 곁을 떠나도록 하는 불행을 초래하게 했다. 푸닥거리는 '일종의 의무 같이 알고 나가'고 남들이 신발값도 안되겠다고 걱정해주면 "「내다리 아파다고 남의 죽는 목숨 안살릴까?」"(318쪽) 라고 할 정도로 헌신적이지만, 남이 믿는 신에 대해 배타적인 데서 모순이 생기게 된다. 율화는 접신을 통해 일만세상의 규범에 근거한 자아정체성에서 벗어났기에 세상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아정체성은 세상규범의 좁은 범위에서 자기 신의 범주로 옮겨 왔을 뿐, 세상 규범이 상대적이듯이 자기 신의 범주도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 자아중심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

율화가 하는 오구굿의 내용에서 오구대왕의 아홉째 공주 베리데기는 아들을 원하는 오구대왕의 바람에 어긋나 '비담밭'에 버려지게 된다. 버려진 베리데기는 학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 뒤 오구대왕이 죽을 병이 들어 약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덟 딸이 모두 변명하고 가지 않지만, 병든 부모의 부름을 받은 베리데기는 부모의 약을 구하려 길을 떠난다. 베리데기는 갖은 고생을 한 후 약을 구해와 죽은 부모를 살려내고 같이 잘 살게 된다.

베리데기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나 부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부모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된다. 베리데기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가 재결합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

은 자기를 버림으로써 가능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아중심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자아중심적인 것은 상대적 세계의 대립관계에서 자기 이해에 따라 자아를 먼저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인데, 베리테기는 상대적 세계의 대립관계를 넘어섬으로써 일반세상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원망과 증오를 넘어선 애정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 세상의 인습에서 벗어나 극기복례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구현하며 본래의 자기모습으로 회복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한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전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많은 구경꾼들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감동에 젖게했다.

그러나 율화는 곳에서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신과 많은 구경꾼들과 일치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자기를 독선적일 만큼 굳게 주장하기에 곳 속의 율화와는 거리가 있다.

남편 방돌이 율화의 만류에도 떠나는 것은 율화가 술을 마시고 다른 남성과의 문란한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용서를 빌면서도 지속시키는 데서인데, 그것에 대한 율화의 태도는 방돌에게 빌면서도 “집에서 달회 아베한테 섭섭하게 한 일은 없”(361쪽)다는 자세이다. 잠자리, 음식 공대에서 남편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없으니 내 하고 싶은 일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의 규범에 입각해 있는 남편과 자기의 처지를 알면서도 남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위주로 생활해 간다.

영술에 대해서도 영술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를 보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비난하듯, 인정하지 않는다. 율화가 ‘제식’을 믿듯이 영술이도 ‘하나님’을 믿지만 율화는 영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만 인정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한다해도 단순한 비교를 통해 예수가 귀신들린 병자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면 자신도 역시 귀신들린 병자를 고쳐주는 ‘신령님의 아들’이니 다같은 존재라는 차원에서 이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적 핵심은 제외된 채 “먼 타국에서 온 옛날 신자만 제일이고 살아 있는 우리나라 신자는 외면해야 되”(423쪽)느냐고 따진다.

율화가 처음엔 기독교의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다 나중에 대등한 차원에서 인정하기까지 하지만, 자신의 신만을 생각하기에 ‘야수귀신’에 들린 아들 영술을 구하기 위해 성경을 불사르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영술을 칼로 찌르기까지 한다. 여기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오는 본능적인 집착과 지난날 사랑하던 사람이나 깊은 상처만 안겨준 성출에 대한 원한이

함께 작용하기도 했다. 율화가 성출에 대한 맺힌 한 때문에 굿도 그 동네만은 피해왔듯이 영술이 교회를 인연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기독교를 믿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빗줄과 사회적 관계를 내세워 영술을 빼앗아 가는 것이 율화에게 더 큰 분노를 만들어 그런 결과를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영술은 죽고, 방돌이 찾아와 이런 사태를 알고 율회를 데려감으로써 율화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

결국 율화는 굿을 통해 드러나는 자아중심성을 탈피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자신의 생활과 일치시키거나 그렇게 구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율화는 다만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비롯된 강한 자아정체성에 대한 욕구가 접신으로 인해 확고히 되면서 그것을 내면화하여 강화시키기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굿 따로 생활 따로 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도 그 모순을 알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율화의 불행은 자아중심적인 데에 고착되어 부부생활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자기위주의 삶에 빠지게 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삶도 소중한 것인데 자신의 삶과 자신이 믿는 신만을 내세우고 다시말해 자신의 가치관에서만 세상을 봄으로써 자신에게 편리하게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여 스스로 모순을 범하게 된 결과였다.

율화가 부부생활이 파탄의 사태에 직면해도 자기생각을 지속시켜 갈 정도로 세상의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달나라의 선녀 같은 딸 율희가 무당딸로서 부자집의 첩으로 가는 일이 최선이라는 인습에 매몰되기 보다 자신과 성출과의 맺지 못한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율희에게 맞는 청년을 구해 혼인시키는 것이 일관된 행동일 것이고, 또한 자신이 무당인 것에 대해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면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겉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영술의 비극 또한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자극된 자아정체성에 대한 충족의 욕구가 기독교 교리와 사상으로 채워졌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자각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자아중심적인 데로 빠진데 있다.

영술은 가난과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하고 태어나서도 가난과 천대<sup>8)</sup>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와 떨어져

8) “영술이 아홉 살 때는, 글을 배우겠다고 때를 쓰자 보다 못한 방돌이 그의 손목을 잡고 서당으로 찾아가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당의 아들이라 하여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357쪽 참조)

절에서 생활해야 했다. 열한 살의 어린나이였지만 아홉 살 때부터 글을 배우겠다는 의욕이 대단했던 영술에게 절에서의 생활은 무기력하고 부정적이었다.<sup>9)</sup> 어린 나이로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던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했던 배움에 대한 의욕이 충족되지 않자, 영술은 절을 떠나 평양으로 가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영술의 환경은 영술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갖게 했지만 동시에 자아정체성에 대한 충족의 욕구를 일깨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갖게도 했다. 그래서 절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 선교사를 통한 기독교의 교리와 사상은 영술의 새 삶을 약속했고 영술의 삶에 중심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에 영술은 “세상에 있는 어느 왕자나 부자도 부럽지”(332쪽) 않았다. 영술의 자아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져 그로 인한 충족감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세계 내에 있을 때만 그러했다. 평양에서의 행복한 생활은 불쌍한 어머니를 더 간절히 생각나게 해서 영술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고향에 들어서자마자 사회적 관습에 대한 위압과 거부감이 되살아나 그를 위축시킨다. 자기의 내력을 모르거나 문제삼지 않는 데서는 영술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상처가 잠재워져 있었지만, 자기의 내력을 알고 문제시하는 고향에서의 영술은 그 사회적 처지의 열등감에서 온 상처가 극복되지 않아 스스로를 감추고 괴로워 한다. 그것은 영술이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어머니의 집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루종일 걸려서야 찾게 되는 데서, 그리고 말씨도 고향 말씨를 쓰지 않고 평안도 말씨나 서울말씨를 쓰는 데서 나타난다. 한편 어머니의 심정이나 신앙이 예수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그녀로 하여금 예수교를 이해하고 예수교로 돌아오게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영술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렇지만 영술은 사회적 인습에 반비례해서 생긴 자신의 열등감과 그 깊

9) “제가 절에서 불도를 배울 때 보니, 마음씨가 착한 스님네들은 낮이나 밤이나 졸고만 있고, 마음씨도 착하지 못한 스님들은 장사만 할려고 하고, 하나도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절에 가도 스님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330쪽 참조)



은 고민에 대한 극복을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열등감은 존재의 본질에서 볼 때 실상이 없는 것임을 그리고 상대와의 끝없는 거리는 상대의 세계의 바탕이 나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됨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 인습과 상대의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것, 그것에만 의거하여 사회적 인습과 상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범을 더욱 철저히 기킴으로써 그 괴로움을 이기려고 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처지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철저히 지켜가고자 하는 태도<sup>10)</sup>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이 영술로 하여금 현실을 냉정하고 철저히 대하게 했다. 헤어진 후 처음 대하는 어머니에게 을화가 싫어하는 평양말씨와 서울말씨를 쓰고<sup>11)</sup>, 박장로에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무릅쓰고 박장로의 도움을 청하며, 을화의 곳을 보고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정립된 영술의 삶은 규범적이고 문명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술이 처음 집안에 들어가는데 무너진 담장 쪽에서 난 가까운 길을 두고 굳이 처음부터 문으로 낸 것으로 보이는 돌 사이를 지나며, 어머니와 월희가 사는 집의 불결함에 수치스러워 하고, 누이동생이 방과 뜰도 구별하지 않고 흙문은 맨발로 다니는 것에 대해 당황해하며, 옷갈아 입는 누이동생의 알몸을 우연히 보고 그것이 일찌기 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것을 느끼지만 그런 생각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든' 것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바탕 위에서였다.

그런데 자신의 세계관에서 보고 느낀 그 행복을 어머니와 월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의 합리적인 것을 도외시 한 채 자기 것만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고자 하는 데서 영술은 한층더 배타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 영술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구원되는 자와 아주 소멸

10) 이런 태도가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질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인간의 한계상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11) 어머니와 친근히 대할 때는 고향말씨를 쓰면서도, 신의 문제로 언쟁을 벌여 영술이 몹시 흥분한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서울 말씨로 엄중히 항의" (422쪽)하는 태도는 일에 대해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을 객관화하는데 익숙해진 의도적인 태도이다.

되는 자로 나누어 생각하던 것에서, 율화의 굿을 통해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는 자와 혼이 소멸되지 않고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에서 맴도는 자로 나뉜다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굿하는 것만으로 무당을 비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율화가 오구굿을 보고 잘 알아듣는 것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에서 본 그 어떤 성화보다 인간의 육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율화가 자기가 믿는 신과 죽음에 대한 세계를 주장해 올 때 영술은 자기 신이 모독당했다고 여기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까지 끊었다고 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율화가 영술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을 구해주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았거나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후, 자기는 그것을 '똑똑이 안다'고 주장한다. 원과 한이 맺혀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귀신들이 산사람에게 붙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데 그 병을 신자 즉 무당이 고쳐줌으로써 그 귀신들이 저승에 가게 되는 것이니 자기는 그것을 현재의 삶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 낮게 하듯이 무당도 귀신을 쫓아 병을 낮게 하니 이는 똑같은 권능을 지닌 것으로 신령님의 아들인 무당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째서 먼 타국에서 온 신자만 제일이고 살아 있는 우리나라 신자는 외면해야 되느냐"고 따진다.

이에 대해 영술은 인간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세계를 현실에서 성실히 실천하지 않은 채, 자신이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신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화를 내고 돌아섬으로써 모자 사이가 더욱 멀어지고 결렬된다.

상대방의 지닌 그것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세계 내에서의 유일성과 자기 처지에서의 합리성만을 고집하여 모두의 행복을 위한다는 행위가 오히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모순에 빠져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이다.

박장로는 율화나 영술만큼 자아중심적인 데에 빠지지지는 않았지만 표리가 다른 삶의 중심 때문에 삶의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鄉班이요 토호인 장로 박건식은 나라가 망하게 되자 모든 것을 잃은 것

으로 여겨 상투를 자르고 세상을 등질려고 했다. 그러나 조상의 유업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식음을 전폐한 반대로 세상을 등지지는 못하고, 나라 되찾는 일을 벌리기 위해 시골에서 읍내로 나가는 허락을 얻는다. 읍내에 나가도 집안 대소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었다. 그러면서 처자식은 딸려보내지 않고 혼자 가되 소실을 들여 불편을 해소하게 했다. 부모의 강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박장로는 독립군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진사 최감과 관계를 맺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아이를 죽여 명도점을 치는 할미의 사건을 듣고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먼저 미신타파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최감과는 노선을 달리한다. 그러던 중 당숙의 예수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교로 개종하게 된다.

나라의 망함으로 인한 자아상실은 박건식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했으나, 조상과 자신과의 끊을 수 없는 지속적 관계 속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선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것은 왜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빼앗긴 직접적인 원인은 왜놈 때문이지만 결국 우리가 힘이 약해 나라를 빼앗겼으니 힘이 약하게 된 원인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힘이 약해진 것은 지금과 같은 체제와 사고방식에서 누적된 결과이니 그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박건식이 병이 나면 당연히 의원에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실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당숙의 회갑연에서 예수교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항반 토호로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화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제와 인습을 개혁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에 나라가 망했다는 비보를 듣는 날 상투를 자르고 사흘 동안 사당에서 통곡을 끊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라 망함으로 인한 절망도 나라 망함 그 자체보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원인들에 대한 통찰과 자기 개인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절망감을 더했다고 볼 수 있다.

절망감이 중이 되어 세상을 등질려고 했지만 부모 자식 사이의 인륜이란 근본적인 바탕에서 있는 개화지식인으로서 그런 현실을 등지지 못하고 탐색하던 중, 예수교 얘기를 듣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인습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하고 개혁해갈 수 있는 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 지도자였던 최진사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공자교인 가풍을 배반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교란 새로운 사상에 삶의 중심을 옮긴다.

그러나 박장로가 나라 망함으로 인한 자기중심 상실에서 예수교를 새로운 삶의 중심으로 정했지만, 내면엔 가족 중심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예수교를 미신타파의 수단으로 삼고<sup>12)</sup> 있기에, 영술이 살아 있는 아버지를 찾아 자기 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에 더 적극적이다. 그 이중성으로 인해 자아중심이 정립된 것 같아도 확고하지 않다. 물론 東道西器처럼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예수교를 수단으로 삼아 주체성을 보완하고 강화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그리 대단하지 않고 그의 태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박장로가 미신타파를 위해 개종까지 했지만 동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을화를 멀리하면서도 을화와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을화의 곳이 유명하여 온 동네 사람이 몰려들고 그 곳에 모두를 감동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면, 미신타파에 완강한 그로서 당연히 무당의 미신적인 면모를 비판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영술의 살아 있는 아버지를 찾아주는데 적극적일 뿐이니, 박장로는 개혁의식은 있으나 관습적인 삶에 구속된 채 자기 삶에 안주함으로써 또한 자아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불확정한 시대의 삶의 지향점

작품 「을화」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 전후이다. 중세의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회적 인습이 여전히 남아 삶을 구속하던 때에 을화와 영술은 하층집단 속에 아주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있기에 삶의 모습이 일정하지 않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점은 사정은 다르나 양반 후예인 박장로에게도 마찬가지이

12) 이동하의 앞의 논문에서도 “박장로는 투철한 유교인으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지닌 채 오직 미신타파라는 현세적 공리적 차원에서만 기독교를 수용하”(136쪽)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 박장로는 나라의 망함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 것처럼 여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을화」의 주요인물들은 식민지치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신분적 질곡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과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들은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생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터잡고 삶의 중심을 세우게 된다. 을화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고 많은 영험을 나타냄으로써 인근 동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술은 불우한 가정에서 벗어나 평양에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에 귀의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박장로는 유교에 바탕한 삶을 지키되 미신타파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자아중심적인 것에 치우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이 됨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낳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 자기존재와 삶의 의미를 구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세계가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소외당하면서 갖게된 자신의 존재의미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박장로의 경우도 나라가 망한 것이 유교에 기반한 구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모순을 보완할 새바탕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강대한 서양 물질문명의 바탕인 기독교를 접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세계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의 교리와 규범에만 종속됨으로써 그 세계 속에 매몰되어 바극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신의 세계로서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지만 인간적인 가족의 면에서는 자아중심성을 넘어서고 있다. 영술이 병에 걸렸을 때 을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고, 영술은 목숨같이 중히 여겨 한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성경을 어머니 을화를 만날 때 그 감회로 인해 땅에 떨어뜨리며 또한 어머니 때문에 죽어도 어머니를 위하고 있다. 여성출은 사회에서 천대하는 무당자식이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술을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고, 박장로는 조상에 대한 신념 때문에 자신의 신념까지 굽히며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아중심성의 탈피는 부모자식 사이의 가족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을화의 오구굿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현상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베리데기와 같이 자기희생을 통한 세계와의 화합과 자기회복의 본성이 내재해 있음을 말해 준다. 살신성인이란 말과 같이 오늘날에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들을 경험하듯,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 영술의 죽음처럼, 신이 가족관계보다 우위에 있고 그것이 부모자식 사이의 가족관계까지 깰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살이의 인간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김동리는 이 인간적 비극을 통해 역설적으로 혈연으로 맺은 가족관계의 뗄 수 없는 친함과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세계 속에 내재해 있는 본성을 연결지음으로써 자아중심성을 넘어서는 삶이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로 맺은 가족의 친밀함에 내재된 그 친밀함의 근원이, 자기헌신을 통한 세계와의 화합이자 자기완성이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것이 처절한 비극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행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자기헌신을 통한 새삶의 창조의 길을 열어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율화와 영술이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에게 개종하기를 요구하는 것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같이 누리도록 해주기 위한 깊은 정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지향하는 바가 같았으면서도 자아중심에 빠져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비극이 생긴 것이다.

작중인물들이 선택한 종교의 본질이 자기헌신(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의 창조(재생)라는 공통된 면모를 지니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 본질을 깨달아 신이 제시하는 삶이 인간이 갈구하며 구현하고자 하는 삶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낙원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동리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무교와 유교를 통해 우리의 심성 밑바닥에 내재하고 있는 세계를 찾아내고 거기에 기독교의 사상을 융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신의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일'을 영원히 지키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것이 이웃과 민족, 인류 전체어로 확산되기를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일생동안 추구해온 구경적 삶의 모습일 수 있고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 고도의 산업사회로 인한 비인간화가 부각되고 정치적 독재로 인한 인권

유린이 노출되어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적 기반을 생각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

#### 4. 결 론

김동리는 일제 식민지치하의 암울한 상황과 전쟁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가 점증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인간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천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황토기」, 「달」, 「역마」, 「홍남철수」, 「까치소리」 등과 같이 그의 작품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과 「무녀도」를 3번이나 개작하고 그와 같은 맥락의 「을화」을 만년에 다시 발표한 것을 볼 때, 유한한 인간의 운명적 삶에 대한 그의 고뇌는 남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 삶의 비극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김동리는 그것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갈망을 표현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의 대립이란 틀을 통해 가족관계 속에서 형상화 함으로써 그런 면모를 극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자아중심성이 부모 자식 사이의 가족관계까지 파괴하여 삶을 허망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모순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정반대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에 함몰되어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의 본질적인 면을 회색화하여 자아와 세계가 화합하고 자기 삶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상대적 세계관으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장과 근거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김동리는 그것을 무교와 유교를 통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에서 찾아내고자 하며 거기에 기독교 사상을 융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신의 세계를 탐색하고자 했으나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류보선, 〈탈근대적 지향과 전근대적 귀결 -김동리의 「을화」에 대하여 「문학정신」, 1992.7.
-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1987.
- 신동욱, 「우리시대의 作家와 모순의 美學」, 개문사, 1982.
- 이동하, 〈한국문학의 전통지향적 보수주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재선, 「現代韓國小說史」, 민음사, 1991.3.
- , 〈정신사적 구원의 문제〉, 「문학사상」, 1978.4.
- 유동식,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6판.
- , 「民俗宗敎과 韓國文化」, 현대사상사, 1978.
- 유주현 편, 「東里文學이 韓國文學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1972.2.
- 조낙현, 〈金東里의 「乙火」攷〉, 관동대학교 논문집 15집, 1987.
- 천이두, 〈동굴의 미학과 광장의 신학〉, 「세계의 문학」, 1979 봄.
- 로버트 벨라,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박영신옮김, 삼영사, 1981.